



청소년의 건전한 삶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첨단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불안정한 계층은 청소년층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청소년 대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관념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성숙해 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우울이 많은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01년 아동발달백서' 가운데 청소년들의 문화실태 조사결과는 '삼고삼저(三高三低) 현상'으로 요약된다. '3고'는 '음주흡연율, 인터넷 접속시간, 학교에서의 체벌'을 가리키며, '3저'는 '가족간 대화시간, 독서량, 운동량'을 말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생을 막론하고 20.5%가 1주일에 한 시간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또한 청소년의 60.7%가 1개월간 독서시간이 1-3시간인 것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공부문제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래 및 진학문제(6.1%), 가정문제(5.4%), 학교생활(4.5%) 순이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으로는 친구가 5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응답자는 13.2%로 매우 낮았다. 이어 중고생의 70%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란 사이트 방문경험도 사용시간에 비례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음주의 경우 중학생 때는 음주경험자가 16%선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52%선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음주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중 한 달에 1-2회 마신다는 주당도 20.3%나 됐다. 흡연의 경우에는 중학생 흡연율은 3.6% 정도이나 고등학생 비율은 9.9%로 3배 가까이 높았다. 한편 청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소년들에게 '우울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느끼지 않는다는 57.8%였고, '격정이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51.4%가 매우 그렇거나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53.0%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해 우울함, 격정, 외로

서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성장해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지금의 인터넷 중독에 비교할 수 있는, 낱밤을 새며 무협소설에 탐닉하기도 했었으나, 이를 통해 길러진 독서 습관, 무술에 대한 호감 및 소림사의 달마 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훗날 필자로 하여금 빠른 독서이해력, 합기도 운동 3년을 통한 신체단련(이때 단전호흡 익힘), 선가(禪家)

상당수 우울·외로움 호소...정신상태 심각 청소년선도위 상설 단·장기 대책 강구

움 등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대가족 집안에서 성장한 필자의 청소년기는 비교적 순탄했으나 약간의 고비도 있었다. 그러나 주위 모든 이들의 도움 속에 어려운 상황들을 잘 반전시켰다고 판단된다. 2대독자였던 필자는 누이들이 다섯인 집안에

로의 입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첫 음주는 33배 예비고사를 본 날 저녁 중독집에서 가까이 지내던(선량한?) 친구들과 소주를 몇 잔 먹은 정도이다. 필자의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비린 생선을 워는데 사용했던 새끼 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석가세존의 '새끼줄의 비유'가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흡연은 대학교 진학 후 첫 번째 여름방학에 있었던 고

3 반창회에서 배워 6개월간 하루에 한 갑씩 피우다 목에 가래가 끼고 이 공학도로서 계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즉시 흡연을 중단하였다. 그러면서 필자는 인생에 대한 방황기를 1년간 거처며 석가세존의 일대기(가운데 특히 태자시절의 길등과 극복 과정을 읽고 보람된 삶의 길을 갈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는 절친했던 친구 부친(당시 50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종달 이희의 노사 문화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자적인 삶을 걸기 시작했다. 지금은 재가 수행모임인 선도회의 법사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고1때부터 선도회 모임에 나오고 있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인 한 학생의 경우, 고3시절 입시 준비로 모임에 거의 참석치 못했으나 가끔 인터넷을 이용해 찾아온 것으로 고인 상담을 요청해서 몇 차례 상담을 해주었다. 특히 장래에 사회복지 관련 일을 희망한 이 학생은 21세기에 불교사회복지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필자의 조언을 받고 동국대 불교학부에 입학했으며,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군중법사 자격시험도 통과해 놓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견해로는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청소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불교계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성장기의 갈등을 극복하며 바른 길로 곧장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비중 있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폭넓게 단거, 장기적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급한 때라 판단된다.

이렇게 들었다

'공익성 추구' 보다 충실해야

상도덕 외면, 홈쇼핑 케이블TV의 5개 홈쇼핑방송 모두가 시중가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장사를 해왔다니 어이가 없다. "백화점보다 얼마가 더 싸다" "몇 개 남지도 않았다"며 소비심리를 부추겨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홈쇼핑 채널의 전형적 판매기법이었다. 그런데 실제 매장가격은 홈쇼핑방송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싸지 않았고 심지어 시중에서는 취급되지도 않는 제품과 거짓으로 가격을 비교한 경우까지 있어 방송위원회가 중징계를 했다. 특히 이들 홈쇼핑 방송 대부분이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반목을 사고 있다.

홈쇼핑 방송의 잘못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파문을 빚었던 독성물질이 들어간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판 것도 홈쇼핑 채널이었다. 속옷을 취급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라의 여성모델을 동원해 '나체쇼'를 펼치는 등 심신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이념의 예외지대일 수 없으며 상도덕을 외면하는 일은 더구나 있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즈음이다. 방송위의 명령에 따라 시정와 일회성 사과로 끝나서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쇼핑방송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자기단속이 요구된다.

▣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출요경 방일품>

▣ 물건을 팔 때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라도 상도덕을 어지럽혀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한낱 도둑질과 다를바가 없다.

<유교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②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다

임제가 말하기를, 살아있는 부처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게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눈앞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바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며, 바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곧 육체를 사용할 줄 아

는 무엇이며, 육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도무지 명확히 잡히지 않는다. 임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태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임제의 이 말은 평범한 의식으로는 이

다 겪어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禪)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언급은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선을 체험한다는 것은 보통

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면 선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제 임제가 말하는 살아 있는 부처를 한 번 시험적으로 경험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없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색깔을 따라가면 다름이 있고, 소리를 따라가면 다름이 있으며, 몸의 자세를 따라가면 다름이 있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다름이 있다. 그러면 다름없는 것은 무엇인가? 색깔이 나타나면 보고 소리가 나타나면 들으며 인연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이것(가)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알겠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 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삼보 Three Jewels of Buddhism

Three Jewels of Buddhism are Buddha, teaching, Buddha's followers. Korea has the Three Jewels Temples.

불교에는 불, 법, 승의 세 가지 보물이 있고 한국에는 삼보사찰이 있다. Tongdosa-temple was built by Master Chajang. He brought relics of the Buddha from China and enshrined Tongdosa-temple. It represents the Buddha and so there is no need for a statue in the Main Hall as well.

몽도사는 자장에 의해 지어졌다. 그는 중국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와 몽도사에 모셨다. 그것은 곧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웅전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Haensa-temple has the Tipitaka Koreana, a record of the teachings of the Buddha.

해인사는 고려대장경이 있다. 고려대장경은 부처님 가르침의 기록인 고려대장경이 있다.

Songgwangsa-temple representing the Buddha's followers because of sixteen National Masters including National Masters Chinul have lived here.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을 비롯해서 16분의 국사가 이곳에 머물렀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상징한다

그대가 지금 법을 듣는 것은, 그대의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육체를 쓸 수 있는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가고 머무름에 자유롭게 된다. 나의 견처에서는 깨달 법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성스러움이란 성스럽다는 말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를 찾지만 이는 잘못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그대들이 문수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눈앞에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이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은 곳곳에서 모두 참된 보현이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으면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니 이것이 관음이다. 삼매법에서는 이들 셋이 서로 주인공과 동반자가 되어서 일시에 나오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와 같이 알 수 있어야 비로소 가르침을 잘 살핀다고 한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어긋나

는 것이라고도 한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대단히 불확실한 말이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또 어디에 있

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은 임제 자신이 현재 체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실을 일상적인 언어로 억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 까닭은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수한 것을 얻어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선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실상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실상은 동일하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댁님에 지친 수행승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화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증후,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맑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
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디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산삼물품품질관리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사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질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팔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면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내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447-5300